

# 이건희 회장父子 소환될 듯

## 삼성특검 “에버랜드 사건, 기소 안된 피고발인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는 29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에버랜드 사건’의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한 명인 이견희 삼성 회장과 피고발인 33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에버랜드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겨받은 ‘수혜’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에버랜드 CB 발행’ 고발 사건을 포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피고발인

들의 혐의 유무를 확인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이 사건은 피고발인이 33명이나 되지만 그 중 2명만 재판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피고발인은 분리 결정이 나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특검의 임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과 에버랜드(옛 중앙개발) 대표 및 이사, 감사 전원 등 총 33명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피고발인 중 CB 저가발행을 맡은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의 해당 사건만 분리,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태학·박노빈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수사를 재개했지만 이 회장 부자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0여명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CB 저가발행’이 이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를 차원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삼성물산 본부장급 임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동영의 여부, 그를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삼성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사건 참고인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며, 에버랜드·서울통신

기술·삼성SDS·e삼성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사건의 참고인들에 대해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삼성 전략기획실의 최모 부장 등 일부 관계자가 지난해 말 이후 행방이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것과 관련, “우선 소재를 파악 중이며 꼭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방법을 생각 중이다”고 말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또는 지명수배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흥송원 서미경씨 리 대표는 미술품 구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이를 시기에 재소환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국 50년만의 폭설** 수백만 구경객들이 철도역 공항 등으로 몰린 지난 27일, 중국 화중·화남지방에 50년만에 최대의 폭설이 내려 일부 지역의 경우 육·공·교통이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허베이 도로에 쌓인 눈·얼음을 치우고 있는 중국 전투경찰들. /연합뉴스

# BBK 특검, 도곡동 땅 관리인 소환

## 이상은·김재정씨도 이번주내 소환 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는 29일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의 의혹과 관련해 이 땅을 판 매각대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김재정씨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당선인 소유의 영포빌딩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이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씨 몫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담긴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해준 사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제3자의 것이라고 결론내고 이병모씨를 불러 돈이 누구에게로 전해졌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그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은씨의

돈 심부름을 해줬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황석 서류 가방을 들고 특검팀에 나온 그는 기자들과 만나 “도곡동 땅이 이상은, 김재정씨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말한 뒤 조사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번주 내로 이상은, 김재정씨 등 핵심 참고인들을 차례로 불러 도

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BBK 명함’을 공개해 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에 불을 지핀 이상준 전 싱가포르 대사가 지난 1월 12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귀국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들과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대선 직전인 작년 11월 “2001년 5월 30일 이후 소유 의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받았다”며 ‘BBK투자자문주식회사.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李明博(이명박) 會長/代表理事(회장/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

# 오바마 ‘슈퍼 화요일’ 전망 밝지않다

## 월스트리트 저널 “대부분 州 힐러리에 뒤져”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압승을 거둔데 이어 케네디가(家)가 지지 선언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슈퍼화요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현지시간) 오바마 의원이 슈퍼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는 22개 주 가운데 대의원 수가 많은 대부분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오

바마 의원이 약자의 입장에서 슈퍼화요일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오바마 의원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압승으로 돌풍을 피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22개 주에서 동시에 선거가 열리는 슈퍼화요일까지 힐러리와 격차를 줄이기에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돌풍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전국 지도에서 힐러리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까지 선거가 이뤄진 지역보다 더 많은 대의원을 가진 ‘덩치 큰 주’에서 힐러

리가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는 441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주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힐러리에 밀리고 있으며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고향인 일리노이와 조지아주 밖에 없다.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압승의 원동력이 된 흑인 표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남부 몇 개 주에 불과해 슈퍼화요일을 맞는 오바마 진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돌파구 열릴까

## 미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 내일 평양 방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시한을 넘겨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리들이 잇따라 방북할 예정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영변 핵시설 봉쇄와 실무회담을 이끌거나 북한과 핵신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작년 말 수 차례 방북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국(29일), 중국(30일)을 거쳐 31일 다시 평양을 찾는다. 올해 들어 첫 방북으로, ‘10.3합의’

에 따라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시한(연말)을 넘긴 상태에서 맞는 북·미 간 첫 공식 접촉이다.

김 과장의 이번 방북도 핵신고의 최대 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신고서에 담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UEP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식의 문구만 신고서에 들어가면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금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

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양보안을 만들었으며 김 과장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추측도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2차 북핵위기의 진원지였던 UEP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신고서에 담겨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UEP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해명할 것도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틀을 깨기는 원치 않고 있는데다가 특히 북측이 김 과장의 이번 방북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회담의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방북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부시 마지막 국정연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8일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1시) 미 의회에서 행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작년 12월 자신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미-페루 FTA 관련 법안에 서명했음을 상기시키고 한미 FTA를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를 조속히 비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3개의 FTA는 미-페루 FTA 합의문에 담긴 노동과 환경조항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과 투자, 고용창출을 위해 3개 FTA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날로 커지는 한국시장에 더 많은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동의의 피도록 의회와 계속해서 긴밀

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 서브 프라이머리 모기지 사태, 금융부실 등을 의식한 듯 “현재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은 나라 가정의 식탁에서 국민이 미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국민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개월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고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은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우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www.hgosi.net 062)222-6790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	-----	-----	-----	-----	-----	-----	-----	-----	-----	-----	-----	-----	-----

=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닌 보물이다. =

**정규이론D반** **개강 2월 1일** **문제풀이반**

= 2개월 완성 이론반 = **1개월 완성 코스** =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행정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공안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2월 1일**

**9급 이론박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에약립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원은 부구청장  
www.hanbitgosi.co.kr 062)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스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진)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향서원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교육장소**

- 광주(금남로 무등고시학원)
- 목포(하동 숲속이야기 평생교육원)
- 순천(연향동사거리 GMB영어학원) 문의: (062)434-7857

★ 각종 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등) 출장 공연 ★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